

## 녹색댐, 단체의 숲, 푸른 교실!

혹시 ‘국민의 숲’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라에서 국유림을 국민들이 직접 가꾸면서 산림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한 숲을 ‘국민의 숲’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그루녹색회 단체의 숲도 ‘국민의 숲’의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선발한 숲지킴이 푸른숲선도원들이 직접 가꾸어갈 우리 청소년들의 숲입니다. 그린레인저 스쿨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는 푸른 숲선도원 고유 프로그램입니다.

제2기 그린레인저 스쿨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인천 담방초등학교와 파주 금화초등학교의 푸른숲선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용호 박사님, 전재홍 박사님, 이승우 박사님, 이윤영 박사님이 진행해 주신 탐구 프로그램 ‘박사님, 녹색댐이 뭐예요’와 한신초등학교 장은영 선생님, 계상초등학교 이용상 선생님, 송덕초등학교 박세흠 선생님이 진행해 주신 체험 프로그램 ‘현직 교사들이 7차 교과서로 진행되는 숲속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소감을 모았습니다.

### 숲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고 구경하게 될까? 궁금한 생각과 함께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양평에 있는 국민의 숲.

우리 학교와 인천에서 온 학교 등 2개의 학교가 있었고 난 호랑이 반이 되어 숲으로 공부를 하러 출발했다. 가다가 잠시 선생님이 멈추어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식물을 크게 해서 볼 수 있는 조그만 도구인데 되게 신기했다. 나중에 그게 루페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이 4명씩 3모둠으로 나누어서 주시고 ‘이끼’라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무엇인가랑 닮았냐고 물으셨다. 난 해초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소나무가지를 부러뜨리면 그 속과 비슷하다고 했다. 선생님께 선 친구의 말이 맞다고 하셨다. 문제를 맞추면 점수를 받는데 그걸로 나중에 선물도 주셨다. 솔이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정말 청설모와 다람쥐의 차이점도 알게 되었다. 올라가는 길에 선생님과 같이 했던 박쥐와 나방이란 게임도 정말 재미있었다.

또 박쥐동굴도 보았다. 지금은 박쥐동굴에 박쥐가 살지 않지만 옛날엔 박쥐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박쥐에 먹이는 곤충, 모기 등을 먹고 초음파로 길을 찾는데 정말 신기하다. 박사님과 개망초라는 꽃을 루페로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애벌레가 있었다. 책에서만 보던 애벌레를 보니까 아주 반가웠다. 열심히 공부한 뒤 선생님들께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공부를 시작하였다. 돌이 부서져서 흩이 되며 흩이 하는 일, 녹색댐에 대해서 실험과 함께 공부도 했다. 숲이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숲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늘 하루 더워서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혜지(금화 초등학교))

##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쉬워요

2006년 7월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에 다녀온 기억을 떠올리며 올해 아이들과 숲에 다시 한번 올 기회가 있을까 하던 중 신청했던 6월 신청했던 그린레인저 스쿨이 연기가 되어 빈자리가 생겨 참가하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쫓겨 거의 1년 만에 찾은 숲, 30여 명의 푸른숲선도원 학생들과 함께 숲에 대한 지식과 즐거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기쁘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숲교육 선생님들을 따라 녹색댐, 식물관찰, 동굴탐험, 흙이야기 등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자연속 동식물들의 생활 모습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전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이들도 푸른숲선도원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경써서 준비해 주신 점심도 너무 맛있게 먹고 더운 날씨 속에 아이들에게 숲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좋은 기회를 주신 그루녹색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민(금화초 지도교사)>



## 숲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다

접하는 자연이라곤 매일 관심 밖으로 스쳐지나버리는 교정의 나무나 거리의 가로수가 전부인 나와 학생들에게 '숲'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늘 싱그러움으로 다가온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푸른 잎으로 감싸주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숲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숲의 모양을 이루는 성분, 숲을 왜 녹색댐이라고 부르는지를 산림청 연구원들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숲 곳곳에 피어있는 작은 식물들을 살펴보며 그 동안 몰랐던 숲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점차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이 느껴졌다. 공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푸르른 풍요로움을 누리기만 했던 숲은 어떤 존재이며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숲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안영미(민천담방초 지도교사)>